

#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별용자...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최  
코로나 회복지원 방안 심의·의결  
오는 29일부터 5부제 신청 접수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최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용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 업종에 1%의 최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용자를 지원한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등이다. 인원·시설운영 제한은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한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8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용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에서 1단계로 6㎡당 1명 제한일 경우에는 일상회복 특별용자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지난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지난 6~9월 개업자

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가 적용된다. 12월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이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소비촉진 행사도 마련했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위한 우수시장박람회도 있다.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

을 위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매달 넷째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하고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도 연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디지털소상공인을 연 10만 명 양성하고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돕는다.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이 지원된다.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이 보급된다.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밀

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받는다.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된다.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도 추진된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한다.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내년에는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5000억원이 발행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내년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은 내년에 1조원 발행이 추진된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企 95% “통상환경 변화 대응책 없다”

중기중앙회 수출입 물류애로사항 조사  
기업 10곳 8곳 수출입 물류난에 난항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는 대부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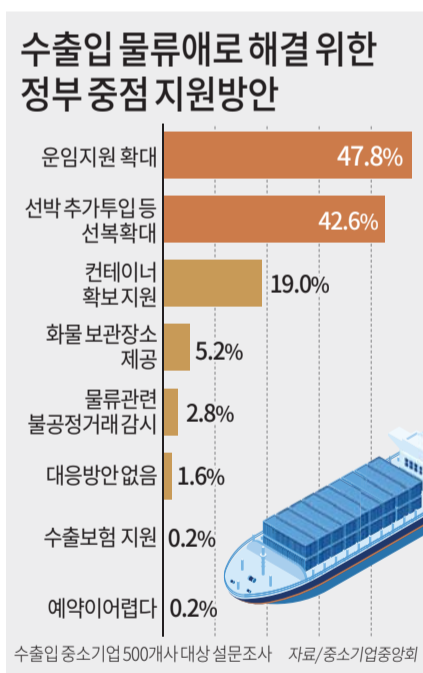
특히 해운·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애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내년도 수출 전망은 '좋다'는 응답이 40.4%로 '나쁘다'는 응답 5.2%보다 훨씬 높았다. 올해 수출실적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4%로,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29.4%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4%의 중소기업이 '없다'고 응답했고, 4.6%만 '대책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수출 리스크는 '선박 및 컨테이너 부족·운임상승 등 물류애로'(61.2%), '원자재 가격 상승'



(47.8%), '원활하지 않은 출입국'(18.6%)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으로는 '신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각화'(5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52.2%) ▲기존 거래처 관리 강화(34.8%)로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수출화물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지원'(72%)이 가장 많았다. 또 ▲기업인 대상 출입국 제한 완화(36.2%)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27.2%)순으로 나타났다.

물류애로 실태 조사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출입 물류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83.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6월) 73.4%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해운·해상 운임 상승'(83.7%)이 가장 컸다. 이어 ▲선적 시기 지연(65%) ▲컨테이너 부족(43.2%) ▲선복부족(41%)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97%, 수입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18%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6월) 조사에서 수출 평균 6.84%, 수입 평균 8.04%로 응답한 것과 비교해 운임 부담이 높아졌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11월 이후 중소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악화된 물류난은 중소기업 수출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 87.6%가 이번 물류난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부의 단기적인 선복확보 및 운임 지원대책 외에도 장기적인 해운물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물류자동화 속도... WCS 확대 적용

(자동화 로봇·설비 통합 관리시스템)

자동화 프로세스 전과정 통합 관리

CJ대한통운이 자동화 로봇·설비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인 '물류제어시스템(WCS·Warehouse Control System)'을 고도화하고 물류센터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송로봇, 로봇팔, 자동분류기 등 여러 종류의 자동화 로봇 및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제어시스템인 'WCS'를 전국 물류센터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오픈소스 신기술 기반의 WCS는 CJ

대한통운의 TES물류기술연구소와 정보전략팀의 협업을 통해 자체개발된 시스템이다. 지난 7월 WCS와 관련된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WCS 도입으로 CJ대한통운은 자동화 프로세스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운영효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됐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속도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DNA 분야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Data, Network, AI)

'비대면 KOSME IR마트'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기업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DNA(Data, Network, AI)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비대면 KOSME IR마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한 3차 IR마트에는 중진공 성장공유형자금 지원기업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졸업기

업 등 7개사가 참여해 민간 벤처캐피탈(VC)과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중진공은 창업기업, 전통제조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에게 교육, 코칭을 제공해 등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IR기회 뿐만 아니라 기업홍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뉴스메트로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대장동 '윗선' 연결고리 정민용 소환 /사진 뉴스스  
▲ 손준성 또 소환될까... 공수처, '판사 사찰' 수사 박차



▲ 청소년 방역패스 검토... "학교생활엔 불이익 없어"  
▲ 병원·요양시설서 집단감염 '우르르'... 취약시설 방역 비상 /사진 뉴스스

▲ 의협, 코로나19 의료지원단 활동할 의사 회원 추가모집  
▲ 사이판, 내달부터 한국인 여행객에 5일 의무격리 해제